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 40:1-38

2021년 10월 30일(토)

1.

40장 1-7절까지는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기물들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순서나, 만든 기물들을 성막 안에 비치하는 순서가 동일합니다.

3절부터 보면, 먼저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들여 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답니다.

다음 성소 안에 진설병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진설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들여 놓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향단에 향은 피우지 않습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불은 번제단에서만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러진 후에야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막 뜰 사이에 휘장을 답니다.

다음 성막 뜰 안에 번제단을 들여 놓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들여놓고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 앞에 휘장을 답니다.

그 다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런 후,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은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더하셔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성막의 기획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막의 총감독도 하나님이시오, 성막을 완성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여러 기물들을 두신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성막'에 대한 설교문을 읽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해의 그 달을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날은 ‘첫째 해 첫째 달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셋째 달 초 하루’입니다. 유대력으로 3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5일 후, 3월 6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날이 4월 16일 경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한 후에,

모세가 두 돌 판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또 40일을 머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옵니다.

아마 5월 26일에서 5월 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성막을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아마 6월 초부터 성막과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법궤부터 시작해서, 진설병상, 금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를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조립하여 세웠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성막과 성막 기물들을 만드는 데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원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 3:12, "...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도 이것입니다.

출 5:1, "...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16,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1,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1,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3,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함부로 드리거나,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장부터 40장에 걸쳐 성막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며 하신 말씀은,
함부로 예배하는 자,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는 모두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3.

34-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6-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길을 떠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보이는 사람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내게 덤벼들어도 결코 주눅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것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았더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